**부활의 새로운 빛**

**<마태복음 28장 1-20절>**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기쁜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날,

낙심과 절망의 사슬을 끊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새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부활의 사건은 당시 어떤 이들에겐 원치 않는 소식이었고, 어떤 이들에겐 일어날 리 없는 일이었으며, 그 외 다른 많은 이들에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다가 마지막 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이러한 통상적인 부활의 시나리오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다른 모든 사람에 앞서서 그처럼 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예고를 들은 바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 속에서,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심히 무서워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처음엔 믿지 않았다는 내용도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이들은 아마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을 유포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의 소식은 그런 식으로 묻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을 통해, 그 소식은 계속해서 널리 널리 전파되어 나갑니다.

후에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무서워 뿔뿔이 도망쳤던 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죽은 이가 살아났다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전하고자 목숨까지 건단 말입니까?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것을 전파하는 거짓 증인들일 것이다.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그런 헛된 일을 위해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리요!” (고전15:14-15,30)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부활이라는 허황된 사건을 날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관점과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기존의 사고의 틀로 그 일을 해석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 예수 부활의 새로운 빛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한 힘’이 그들을 그처럼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변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킵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사실은, 그 초기 제자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은 매우 현 세상적이고 현 시대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자고 난 후에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시다.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분의 주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소식은 그저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을 예고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고, 지금 내 안에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새로운 빛, 즉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복되고 의미 있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 있음을 보다 확연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부활을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시며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권세가 이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을 더 확실히 떠야 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을 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지만, 이에 대해 그는 자기의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반응합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몸의 상처들을 손을 대어 만져보지 않고도 그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요, 또한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본문 9절과 17절에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천 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일로 부르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부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 동행하시나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기대했던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예수 부활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집니다.

또한 함께 식사하며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이후 그 두 제자는 그 즉시 일어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헌신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된 방향으로 집중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에 내가 사용되도록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로 변화됩니다.

내 인생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맞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느 자리에 내 인생이 들어맞을 수 있는가에 생각을 집중하며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이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꿈꾸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한 삶을 추구하다 아무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불행이 인생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빛은 오늘 우리를 더욱 복된 삶의 길로 다시금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다시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배신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받았고, 이후 그의 삶으로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연약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지만,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사랑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는 장로님 한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좋은 글이 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이자 독일 고백교회 목사로서 나찌에 저항하는 길을 가다 고난 받고 죽었던 디트리히 본훼퍼 목사님의 묵상 글입니다.

제목은 ‘선한 힘’입니다.

선한 힘에 감싸이고 인도받으며,

모든 두려움을 넘어 위로 받고 보호 받네.

나는 이 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로 걸어간다.

낡은 해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고,

슬픈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니,

아버지여 우리의 거칠어진 영혼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주소서.

우리에게 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고통의 쓴 잔을 당신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당신의 선한 사랑의 손으로부터 받겠나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한번 더 삶의 기쁨과,

그 태양의 밝은 빛을 베풀어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슬픔으로 배운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께 헌신되겠나이다.

오늘, 초들이 즐거운 환영의 빛을 밝히게 하소서.

아,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어내어 그렇게 기다리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빛이지요?

당신은 심지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도 밝히나이다.

이제 고요함이 깊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우리 주위의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당신을 찬미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높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소서.

선한 힘에 이상하게도 보호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올 것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아, 그리고 매일의 새 날에도 분명 함께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부활의 새로운 빛을 받아 신비한 ‘선한 힘’에 의해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며, 사랑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당신의 영광스런 모습을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잠자는 것들을 깨우시며,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새로운 빛을 받아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람된 소망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가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새로운 빛을 받아**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결단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세상에 빛으로 부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